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8월 29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 29.(목) 오전 09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8. 28. (수)	담당부서	기획재정담당관실
담당과장	이승렬 과장(044-203-5520)	담 당 자	김상우 서기관(044-203-5525) 이근모 주무관(044-203-5517)

내년도 산업부 예산 9조 4,608억원, 23% 확대 편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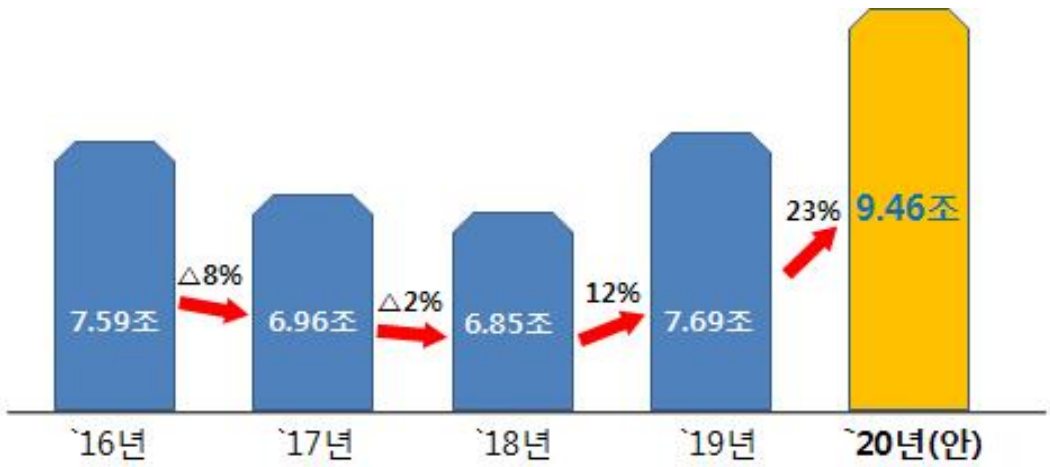
◇ **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약 2배 수준으로 증액 (0.7조→1.3조원)**

◇ **시스템반도체, 바이오 헬스, 미래차 등 빅3 산업 지원 확대 (2,777억원→4,770억원)**

◇ **무보기금출연, 수출바우처 등 수출활력 회복에 1조원 이상 투자**

□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예산안은 **9조 4,608억원**으로 **전년 대비 23%** (약 1.8조원)를 **증액 편성**하여, **경제활력 제고**와 **경제체질을 개선**하고, **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**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.

< 그림1. 산업부 소관예산 연도별 추이 >



○ 특히, 산업부는 20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① **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** 등을 통해 **우리 산업의 경쟁력**을 높이는 한편, ②**수출활력 회복**, ③**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**, ④**지역경제 활성화** 등에도 주안점을 두었다.

❶ 소재.부품.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

('19년) 20,766억원 → ('20년안) 28,618억원 (7,852억원, 37.8%↑)

□ **첫번째,**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, **시스템반도체·바이오헬스·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**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.

※ 관련대책: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대책('19.8월), 시스템반도체비전과전략('19.4월), 바이오헬스산업혁신전략('19.5월),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전략('18.12월), 자동차부품산업활력제고방안('18.12월), 로봇산업육성전략('19.3월), 조선산업활력제고대책('19.4월)

< 그림2. 핵심산업별 예산반영현황 >



□ **(소재 . 부품 . 장비)**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**기술개발**뿐만 아니라 **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, 신뢰성 보증** 등을 全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,699억원에서 **내년도 1조 2,716억원**으로 **89.8%**(6,017억) **대폭 증액 편성**하였다.

▪ 정부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 : ('19년) 8,327억원 → ('20년안) 21,250억원 (출처: 기재부)

○ 특히, 소재-부품-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,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「**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**('19년 2,360억원)」을 내년 **6,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**하는 한편, **장비구축** 및 **성능평가**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. 한편,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「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**」 설치·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하기로 하였다.

▪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: ('19년) 641억원 → ('20년안) 1,834억원
▪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: ('19년) 476억원 → ('20년안) 920억원
▪ 소재부품미래성장동력 : ('19년) 632억원 → ('20년안) 1,457억원
▪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: (신규) 25억원

○ 또한,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·자립화가 시급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**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**하기로 한 「**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**('20년 1,581억원)」, 「**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**('20년 85억원)」 등 **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**하였다.

○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**핵심기술의 자립화** 및 **관련산업 경쟁력 강화**에 필요한 **안정적인 투자재원**을 확보하기 위해 **'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**(가칭)' 설치를 추진하고, 금년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**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**할 계획이다.

□ **(빅 3 핵심산업)** 시장 성장가능성이 크고, 선제적인 투자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**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자동차 지원예산**을 **대폭 증액**하고, **범부처가 긴밀히 협력**할 계획이다.

○ **(시스템반도체)** 내년 예산규모를 **1,096억원**으로 확대('19년 472억원)하여 **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** 확보와 함께 **반도체 개발 전주기**를 지원할 예정이다. 특히,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,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**신규로 반영**하여 **설계기업(팹리스)의 성장**을 지원한다.

▪ '20년 신규사업: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467억원,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90억원,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60억원

○ **(바이오헬스)** '20년 예산은 **1,509억 수준으로 편성**('19년 863억원)하여 신약·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. 특히,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로봇, 정밀 의료기기 등 **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**을 위해 과기부, 복지부, 식약처 등 **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**을 추진한다.

▪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: ('19년) 92억원 → ('20년안) 196억원
▪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: ('19년) 593억원 → ('20년안) 871억원
▪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: (신규) 302억원

○ **(미래차)**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**2,165억원으로 확대**('19년 1,442억원)하고, **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** 등에 착수하는 한편, **테스트베드 구축, 친환경차 보급 확대** 등을 위해 **국토부·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**한다.

▪ '20년 신규사업: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390억원,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127억원,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 40억원,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 53억원

□ **(신산업 등 생태계 조성)** **로봇, 수소경제** 등 **신산업분야**와 **인력양성에 대한 지원**도 강화할 예정이다.

○ **(로봇)** 로봇 예산을 **1,220억원**('19년 991억원) 반영하여 **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**과 **안전한 일터환경 조성**을 위한 **제조로봇**과 **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**을 위한 **서비스로봇 도입 확대** 등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.

▪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: ('19년) 127억원 → ('20년안) 353억원
▪ 5G(5세대 이동통신)기반첨단제조로봇실증기반구축(신규): ('20년안) 18억원

○ **(수소경제)** 금년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금년 530억원 수준에서 **내년도 938억원**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, **수소생산기지 구축**과 **연료전지·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확대 편성**하였다.

▪ 수소생산기지구축 : ('19년) 150억원 → ('20년안) 294억원
▪ 연료전지·수소·수소융복합(신재생기술개발內): ('19년) 313억원 → ('20년안) 513억원

○ **(인력양성)** 또한, 우리 제조업을 선도할 **기초 및 고급연구인력양성**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. 특히, 차세대전력반도체, 산업미세먼지저감, 융합디자인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**교육과정 개발**과 **산학프로젝트 수행**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▪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: ('19년) 901억원 → ('20년안) 1,005억원

❷ 수출활력 회복지원

('19년) 6,876억원 → ('20년안) 10,730억원 (3,854억원, 56.1%↑)

□ <u>두번째</u>, 무역금융 확충,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**수출활력 회복**을 지원하는 한편, **신남방·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**와 **통상분쟁대응**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.

※ 관련대책: 유턴기업대책(18.11월), 수출활력제고대책(19.3월), 수출마케팅지원강화방안(19.4월)

○ **(수출지원 확대)** **국가개발 프로젝트**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,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**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** 등을 위해 **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**를 **3,700억원으로 대폭 확대**하고,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**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적 운영**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.

▪ 무역보험기금출연 : ('19년) 350억원 → ('20년안) 3,700억원
▪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: ('19년) 69억원 → ('20년안) 84억원
▪ 수출지원기반활용(바우처): ('19년) 564억원 → ('20년안) 731억원

○ **(통상분쟁대응) 급증하는 세계무역기구 분쟁**(한일 조선보조금, 수출규제 분쟁 등)**에 효과적으로 대응**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**통상정보센터를 설치·운영**할 계획이다.

▪ 통상분쟁대응: ('19년) 92억원 → ('20년안) 234억원
▪ 통상정보센터설치운영: (신규) 15억원

○ **(투자유치 및 신흥시장 진출)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**(Cash Grant), **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**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비도 확대('19년 871억원 → '20년안 945억원)할 계획이다.

- **신남방·신북방 국가와의 협력**을 위해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, 전자무역플랫폼 등 **공적개발원조**(ODA)를 지속 지원한다.

❸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

(19년) 33,732억원 → (20년안) 37,510억원 (3,887억원, 11.2%↑)

□ **세번째,**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**재생에너지 보급**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, **에너지안전투자, 서민층 복지 확대** 등 포용적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.

※ 관련대책: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강화방안('19.4월),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('19.4월), 열수송관안전관리종합대책('19.6월)

○ **(재생에너지 확대)**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**1조 2,470억원 규모**로 확대하여 **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**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**장기저리 융자, 핵심기술개발**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 또한, **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**과 **풍력산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**신규사업도 반영**하였다.

▪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 : ('19년) 11,360억원 → ('20년안) 12,470억원
■ 20년 신규사업: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25억,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 59억,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6억

○ **(원전 생태계 지원)** 원전수출, 원전해체산업육성,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**예산을 884억 규모로 확대**('19년 728억원) 지원한다. 특히, **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** 등 **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**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.

■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기술개발: ('19년) 30억원 → ('20년안) 151억원

○ **(에너지안전.복지)** 에너지 **안전시설 및 복지**에 대한 투자도 '19년 3,572억원에서 **20년 4,413억원으로 확대 지원**할 예정이다. **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** 지원을 강화하고, **에너지바우처**의 지원대상 확대(한부모·소년소녀가정 세대 추가) 및 **가구당 지원단가 상향**조정 등을 반영하였다.

▪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: ('19년) 983억원 → ('20년안) 1,041억원
▪ 에너지바우처: ('19년) 937억원 → ('20년안) 1,634억원

- **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** 및 **안전설비 투자비용**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('20년 50억)과 **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**('20년 100억)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.

❹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('19년) 14,075억원 → ('20년안) 16,168억원 (2,093억원, 14.9%↑)

※ 관련대책: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전략(18.12월), 상생형지역일자리모델확산방안(19.2월)

□ 마지막으로, 산업단지 활성화, 지역투자유치 등 **지역경제의 활력 회복**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. **산업단지** 입주기업·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**예산을 확대**하는 한편,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**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,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**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.

▪ 산업단지환경조성 : ('19년) 3,401억원 → ('20년안) 4,130억원

○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**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·판로·연구개발·금융·디자인 등 전주기 성장**을 지원하는 한편, 지역산업의 고도화·다각화를 위한 **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**도 착수할 예정이다.

■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: (신규) 567억원

○ 아울러,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**지방이전·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** 예산을 확대하고, 내년에는 특히 **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**에 대한 보조금으로 **210억원을 편성**하여 지원할 계획이다.

▪ 지역투자촉진 : ('19년) 1,481억원 → ('20년안) 2,237억원 (상생형일자리 포함)

□ 이상 산업부가 마련한 『**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**』은 9월3일 **국회에 제출**되어, **국회 의결**을 거쳐 **금년 12월초** 확정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상우 서기관(☎ 044-203-55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